



식품업계
레트로열풍
옛날 간식 돌아온다
L1



Life

수주 잦았
신약 상업화
제약·바이오 '훈풍'
L2



“경험자에게 듣는 가치있는 조언... 인생 바꿀 ‘멘토’ 만나세요”

속깊은 인터뷰

이병희 오디바이스 대표

누구에게나 멘토가 필요하다.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길을 잃기 십상인 디지털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설 때, 나보다 앞서 경험한 누군가의 안내와 응원이 전혀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 공감과 격려 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시대. 디지털 교육 컨설팅 플랫폼 ‘오디바이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내는 이 ‘가치’에 주목했다.

오디바이스(Audivice)는 음성(오디오·Audio)와 조언(어드바이스·Advice)의 합성어로, 음성 기반 1대1 진로·진학 멘토링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202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국내외 90개 대학, 200여개 학과, 500여명의 대학생 멘토가 활동하고 있다.

오디바이스는 교육에 대한 지역간 격차와 정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스타트업이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선 모든 사람이 오디바이스 플랫폼을 통해 멘토링 서비스를 ‘공공재’처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병희 오디바이스 대표는 “사람이 가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멘토링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회가 가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가치를 IT 플랫폼으로 연결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진학·진로·커리어 등 인생 전반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오디바이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멘토를 검색할 수 있다. 수시·정시, 재수·현역, 서울·지방 등 조건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선택에 도움을 준다. 멘토를 선택하고 고민 내용을 미리 적어두면 멘토가 읽어본 후 상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멘토가 상담을 수락하면 매칭이 되고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35분간 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 내용은 모두 텍스트로 저장되고, 상담 후 인공지능(AI)이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 입시 전문가들도 활동 중인데.

“유명 입시 전문가들의 상담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 가능 대학, 최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오디바이스 이병희 대표가 2일 서울 마포구 오디바이스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기 전 사진 촬영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대학생 멘토 직접 선택해 오디오 상담 경험 바탕으로 대학입시에 실질적 도움 검증된 멘토 선정... 기본윤리 정기평가도

지원 전략을 제공한다. 대학생 멘토가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컨설팅이다.”

- 왜 화상이 아닌 음성 기반인가.

“개인적인 고민 상담이라는 서비스 특성상 화상보다는 대화 자체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주된 이용자들이 중고생들인데, 사실 화상 기능이 있더라도 90% 이상 카메라를 끈다. 물론 공유해야 할 자료는 화면 공유를 통해 서로 보면서 멘토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현재 대치동에서 대입 전문가의 상담은 학기 당 350~400만원 수준이다. 오디바이스 플랫폼에서는 1대1 대학생 멘토링을 5만5000원(35분), 입시 컨설팅은 22만원(50분)에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멘토링에 대한 수요가 높다. 멘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멘티의 상황, 고민에 맞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 대학생 멘토링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의 대학입시 자체가 너무 어렵다. 내신과 수능 뿐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되는 수행평가, 세특, 자율활동 등 학생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버거운 내용들이 많다. 평소 학습 계획을 설정해 관리하고, 꾸준히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대학생들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직접 검증된 대학생 멘토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디바이스가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

- 만족도는 어떤가.

“기대했던 것보다 폭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멘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교재, 인강을 추천하거나 생기부 관리법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다. 멘토와 멘티 사이에 형성되는 라포(Rapport·사람과 사람 사이 상호신뢰관계를 뜻하는 심리적 용어)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만들고 있다.”

- 멘토에 대한 검증이 관건일 것 같다.

“오디바이스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멘토가이드’를 만들었다. 기본 윤리를 세우고 가이드의 목적과 가치를 통해 동기부여를 한다. 개별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멘토를 선발하고, 멘토 5대 역량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상담 후 멘토들에 대한 평점과 리뷰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화 되는 것이 강점이다.”

지자체, 학교 등 30여곳과 멘토링 계약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도움 되고파 올해부터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상품도 유학생, 취업, 이직 등 서비스 확대 계획

오디바이스 서비스는 80%가 기업간거래(B2B)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오디바이스는 지자체 25곳, 학교 10곳, 기업 4곳 등 총 30여곳과 대학생 멘토링 계약을 맺었다. 올해는 30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정보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지방은 물론 수도권, 기대하지 않았던 학군지에서도 오디바이스를 찾고 있다.

- 지자체들의 수요가 높다

“지자체마다 자체 교육 보조금 예산이 있고, 상당수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들이 직접 검증된 대학생 멘토를 찾고, 1대1 매칭을 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디바이스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컨설팅이 시급한 지방에서 먼저 찾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원구, 서초구를 거

쳐 강남구까지도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 오디바이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디바이스는 사람이 가진 경험과 재능이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고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멘토가 있고 없고에 따라 한 사람의 미래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 서비스는 수도나 가스처럼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올해 새롭게 생기는 건 뭐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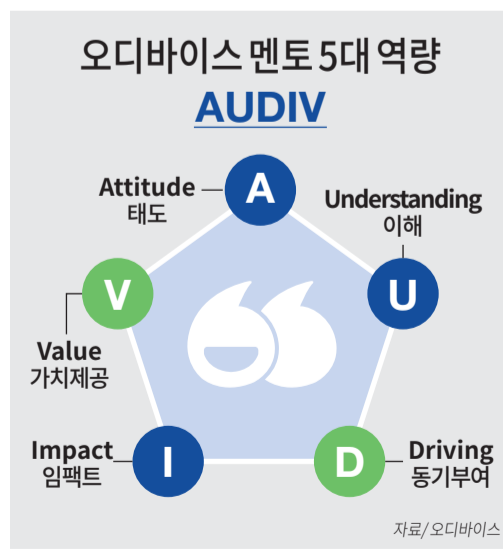
“올해부터 오프라인 상품을 출시한다. 하루 동안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대학 전공 박람회다. 서울 강남구는 물론 수도권, 지방의 지자체와도 계약이 진행 중이다. B2B뿐 아니라 B2C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1~2회 받고 끝내는 멘토링이 아니라 대학입시라는 긴 여정에서 지속적인 1:1 관리를 받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에게 주 1회 정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월 15만원대로 제공할 예정이다.”

- 서비스 확대 계획은.

“유학생 멘토링과 컨설팅도 전문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유학원에서는 해줄 수 없는, 유학생 멘토가 직접 경험한 가감 없는 평가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진학 이후 취업과 이직 등을 포함하는 커리어 부분도 멘토링이 필요한 분야다. 현재 진학상담을 해주고 있는 멘토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면 커리어 분야 멘토로 성장할 수 있다.”

- 오디바이스의 최종 목표는.

“이제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멘토가 필요한 시대다. 진로와 커리어는 물론 인생 전반에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마인드 멘토링 서비스까지,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분야다. 오디바이스는 그 분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대표 기업이 되고 싶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日 니무라·오노 코치 영입...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정성 쏟은 샌프란시스코...한국서 100일간 훈련에만 매진한 이정후 /사진 뉴스스

▲‘공식전 쏜경기 출전’ 김민재, 아킬레스건 문제로 휴식 가능성
▲‘은퇴’ 구자철 ‘韓 축구 최초 올림픽 메달 단 멤버로 기억되고파’

▲이태희, 5년만에 우승 도전...“한국오픈·KPGA 선수권 정조준”
▲대한럭비협회, 심영복 회장 체제 출범...4년 임기